

경남지방회 남전도회연합회 제17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권오조 장로 선출



우리는교회 창립감사예배

창립자 김재용 목사



서울지방회 우리는교회(김재용 목사)가 지난 2월 17일(토) 오후 1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부회장 이길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부회장 험명원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배상도 목사의 '영향력 있는 교회' (마 5장 13-16절)라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이어 2부 창립식에서는 동부감찰장 조기현 목사의 사회로 감찰회 서기 신동선 목사의 기도와 지방회장 배상도 목사의 창립서약과 창립선언이 있었고, 3부 위임식은 배상도 목사의 인도 하에 서기 이규 목사의 위임자소개와 배상도 목사

의 위임 서약과 공포. 종회부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권면, 중경총회장 이상문 목사의 축사에 이어 배상도 목사의 축도로 창립감사의 모든 예식을 온라인 가운데 마쳤다.

우리는교회 김재용 목사는 문화선교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기 위해 대학로에 창립하여 MZ세대들을 위한 친양콘서트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역을 진행하여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지방회주재기자 이세영 목사

경남지방회 남전도회연합회 제17회 정기총회가 2월 25일(주일) 오후 5시 남산교회(김재구 목사)에서 개최됐다. 회순에 따라 1부 개회예배와 2부 정기총회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서 경남지방회장 박희석 목사(진주기독교)는 '그 부활의 권능' (빌 3:9-14)라는 제목과 본문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힙입어 뒤에 있는 일은 있어 버리고 끊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2부 정기총회에서 회장 박상

열 인수집사(진주기독교)의 사회로 각종 회부자리 보고와 신·구 입원교체 및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신임회장 권오조 장로가 취임 인사 및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신임원 명단:

△회장 권오조 장로(남산교회) △수석부회장 황동수 장로(진주기독교) △부회장 이길수 장로(남산교회) △총무 최경선 인수집사(남산교회) △서기 손학운 집사(남산교회) △회계 김종인 집사(남산교회).

기쁨의교회 창립감사예배

창립자 김원영 목사



시흥중앙전도지방회 기쁨의교회(김원영 목사)가 지난 2월 2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41번지 태영포지자 4층 405호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부감찰장 안준찬 목사의 사회와 남관우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정성호 목사의 '서미나교회처럼' (계 2:8)이라는 설교가 있었고, 이천호 목사의 봉헌기도와 창립서약과 선언, 김영일 목사의 축사, 기쁨의교회 김찬호 목

사의 답사. 이제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교회를 개척한 김원영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와 성결대학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7년 5월 14일 시흥지방회 목사인수, 부천의 새로운문제자교회 부목사 사역을 한 후에 교회를 창립했다. 가족으로는 정경숙 사모와 세영 세윤 세경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시흥중앙전도지방회주재기자 김찬호 목사

가나안 청년 73%, “고교 졸업 이후 교회 이탈”

개신교인 청년 24%는 가나안 성도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 19세~34세 청년 중 가나안 성도(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출석하지 않는 성도) 비율은 24% 정도이며, 이들의 교회 이탈 시기는 자율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회인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7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33%)이 교회 재출석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출석 의향은 여성(31%)보다는 남성(37%)이, 30대(32%)보다는 20대(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들에게 과거 출석 교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결과와 예배'에서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아쉬웠다는 의견이 높았고, '청년성도 돌봄 방향'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포용 태도'를 원했던

가 가장 큰 이유였고, '신앙심이 사라지고 회의가 들어서' (12%),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12%),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11%), '사회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4%) 순이었다. 이들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33%)이 교회 재출석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출석 의향은 여성(31%)보다는 남성(37%)이, 30대(32%)보다는 20대(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들에게 과거 출석 교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결과와 예배'에서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아쉬웠다는 의견이 높았고, '청년성도 돌봄 방향'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포용 태도'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이 기대하고 회의가 들어서' (12%),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12%),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11%), '사회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4%) 순이었다. 이들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33%)이 교회 재출석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출석 의향은 여성(31%)보다는 남성(37%)이, 30대(32%)보다는 20대(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들에게 과거 출석 교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결과와 예배'에서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아쉬웠다는 의견이 높았고, '청년성도 돌봄 방향'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포용 태도'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이 기대하고 회의가 들어서' (12%),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12%),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11%), '사회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4%) 순이었다. 이들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33%)이 교회 재출석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출석 의향은 여성(31%)보다는 남성(37%)이, 30대(32%)보다는 20대(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들에게 과거 출석 교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결과와 예배'에서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아쉬웠다는 의견이 높았고, '청년성도 돌봄 방향'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포용 태도'를 원했던

• 건강 칼럼

오십견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깨 주위가 아프다는 사람이 늘어난다. 대부분 오십견(五十肩)이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인 관절낭과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로 인해 어깨 통증이 생기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으로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어깨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오십견이란 이를 때문에 50대에 많이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70대 이상 고령이나 30, 40대 젊은 층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오십견은 전체 인구의 2~5%에게서 나타나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20% 정도 발생한다.

임상적으로 빛을 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40, 50대 환자의 90% 정도가 오십견이며 스트레칭과 악물로 95% 이상 완치할 수 있다.

증상은 어깨가 아픈 것으로 시작된다. 통증 강도는 개인별로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다. 처음에는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줄어들거나 나타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오십견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오십견이 진행되면서 팔의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며, 병의 악화하면 어깨 통증으로 바지줄을 올리거나, 뒷집을 지거나, 안전벨트를 매거나, 양치질·세수·머리 감기 등을 하거나,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집기도 힘들어진다. 아예 팔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들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오십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맨손제조·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지는 어깨를 풀고 운동·온탕·온탕을 시행하면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오십견은 회전근개(轉筋蓋) 파열과 증상이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질환을 구별하는 자가 진단법은 '팔의 운동 범위 비교'다. 오십견은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려 해도 어깨가 굳어 올라가지 않고 통증만 심해지는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아프고 오래 버티지 못하긴 하지만 어깨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생구 원장
한사랑병원

제14회 '사랑의 쌀' 모금결과를 전국교회에게 보고드립니다(지방회별)

2024.02.05 현재

지방회	후원교회	모금액	지방회	후원교회	모금액	합계	쌀 920kg	단위 / 원
경서	하늘꿈(최병수)	100kg	서울동	사랑나루(송진석)	쌀 120kg			
경원	평성(서규현)	200,000	서울북	예수미물(선우담)	500,000			
경기	설길(정재은)	150,000	서울서	두란노(이상분)	쌀 500kg			
	새예언(김영국)	500,000		신월통(고신원)	200kg			
	장자(장래혁)	1,000,000		성자윤(호석)	50,000			
	수원중앙(홍성표) 정로	300,000	서울중부	주님안에살(노윤식)	500,000			
	고천(김만수)	1,000,000		시흥증인(김성은)	4,910,000			
경기남	서설(전연호)	300,000		출온(윤길운)	500,000			
	내수(정병구)	300,000	인양	이보영(월로복사)	2,400,000			
경남	대구신은(권오봉)	300,000		한사랑(장성분)	300,000			
경북	울산수일(이경조)	500,000		왕성신(종보)	750,000			
부천	맑은샘(하수경)	260,000	인천	동신(김주원)	1,000,000			
	늘사람	300,000	인천서	반죽(박윤용)	500,000			
	당진성지(변상복)	200,000		인천평강(서철순)	20,000			
서산	부정(김병옥)	930,000		로뎀(전병숙)	200,000			
	당진성지(변상복)	230,000		행복한(이인원)	200,000			
서울	세광(조기현)	228,000	전북	서령(최병우)	200,000			
	삼위연광(이종옥)	1,000,000		주사랑(민인장)	200,000			
	주빛(길현영)	265,500		양무리(곽충원)	200,000			
	마포제일(이규현)	150,000	충남	반신(이영정)	500,000			
	신림제일(서종로) 정로	200,000	충서	설교(황종만)	300,000			
	사랑기쁨(나주신봉백)	300,000		예수고대한(성결교회)	300,000			
	문화동(양준기)	300,000		사랑의쌀	100,000			
	주향한(박정식)	300,000		초대장(내성)	1,000,000			
서울남	남부(박요섭)	580,000	기타	영광	200,000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사회복지국